

상임위별 부처 심의 마친곳 전무... 예산처리 파행 우려

# 광주·전남 의원들 지역 예산 지켜라

## 여야, 4대강·세종시 등 핵심쟁점 팽팽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불가능 할 듯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협상을 이번 주에도 이어갈 예정이지만 파행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예산내역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 속에 상임위별 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올해 안에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파행 와중에 한나라당이 호남예산을 무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광주·전남 의원들이 지역 예산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심의의 마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5곳은 아직도 예산심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됐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도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오히려 12월 말까지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와 야당의 실력 저지'가 되풀이되면서 예산안 국회 처리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

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의사결정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4대강 예산과 세종시,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예측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정치개혁법안, 행정체제개편법안 등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을 제외하고 상임위별 예산이 넘어올 경우 예결특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일단 상임위별 심사를 예산예결특위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예산 심의에 나설 수 없으며, 여당의 예산안 처리시한 설정은 '날치기 의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예산 심의를 못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예산양식에 맞지 않고 구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열심히 예산안을 심의하더라도 최소한 크리스마스를 넘기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간 견해차가 팽팽선을 달릴 경우 한나라당이 또다시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파행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삭제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지역 출신 의원들이나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이 현명하게 대처, 지역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파이팅” 외치고 있다.

22일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10·28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안산 상륙을 김영환 의원, 당원·당직자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 수암봉을 오르기 전 민주당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野 잠룡들 '특강정치' 경쟁

정세균·정동영·추미애·천정배  
전국 주요 대학서 강연 잇따라

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조선대학교에서 '한반도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갖고 한반도문제와 청년실업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잠룡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특강정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올들어 부산외대와 전북대, 경북대 로스

쿨, 이화여대, 건국대 대학원 등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면서 학생들과 만났다.

미디어법 처리 이후 장외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적극적으로 특강정치를 실천하는 케이스이다.

천 의원은 지난 19일 '민생과 인권은 따로 걷지 않는다'란 제목으로 열린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초청 강연을 통해 각종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재계 세종시 '슬깃'

## 손사래 치던 기업들 이전 검토 등 미묘한 기류

정운찬 국무총리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 간의 지난 17일 회동 이후 세종시 문제를 보는 재계의 태도에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세종시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손사래를 치던 주요 기업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 등 다소나마 긍정적인 힘이 실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경련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구상과 관련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그런 분위기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22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제안받은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이 확정되고 제안이 들어오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정부측의 제안에 대비해 전기·전자 쪽 계열사의 일부 생산공정을 세종시에 두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했지만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세종시 수정계획과 입주기업에 주는 혜택의 윤곽이 드러나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생명과학 등의 이전설이 나온

LG그룹도 내부적으로 아직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지만 정부 측 제안이 들어오면 살펴 보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세종시와 관련해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전과는 달리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포함 본사를 세종시로 옮길 가능성은 낮지만 여타 비주력 사업 부문에서는 이전을 검토할만한 영역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주요 기업들이 땅값 및 세제혜택 등에 관한 정부 방침이 명확히 서면 각자의 손익에 맞춰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남뉴스

# 한나라 세종시 신중 모드로

## 지방자극 우려 정부에 언행 자제 촉구

세종시의 기업유치와 관련, 지방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이 바짝 긴장하며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를 향해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재차 주문하며 지방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관계자는 21일 "당은 정부에 거듭 신중과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종시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슬쩍슬쩍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도

당내 갈등을 우려, 언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은 수정안 마련에 모든 공력을 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정의화 세종시특위 위원장과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정운찬 총리를 향해 "앞서가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기본 골격은 기업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 중심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있다.

세종시에 기업이 대거 이전하는 모습만 강조될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방에서 반발이 확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방의 불만을 가라 앉히면서 세종시에 충분한 대안거리를 주기에에는 상충된 부분이 많아 한나라당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슬깃히 세종시와 지방의 불만을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불만의 정도를 줄이고 다수의 국민의 양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세종시 사수 충청인과 공동투쟁"

## 지방분권 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대표 류한호)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충청인과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광주·전남본부 회원 5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청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세종시가 무산되면 지방에 건설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정상 추진을 충청인과 연대해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이어 "수도권은 과밀화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지방은 공동화라 텅텅 비어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며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서울에서 부산, 목포까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이만원 광주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행정기관을 나누는 게 비효율적이라면 원래 발의했던 대로 신행정수도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www.hanbitgosi.co.kr

# 2010년 공무원정원 4600명 증원 국가직 9급공무원시험 4월 10일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you can ~**

**9종합반 6개월**  
글공합반 회원제 모집  
(교재포함 100만원)  
1개월 수강료 20만원, 교재값 189,000원

**정규수업외 회원의 특전 =**

1. 기초 무료특강 (전과목)
2. 전국 모의고사, 자체 모의고사
3. 동영상 무료제공
4. 책임 담임제 관리

동원(12월) 수강생수 11월 18일~30일 까지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한빛고시학원**

**전국 유일 7급 공무원 짜수바 차지도 9급 이권 7급 신신도**

(12월~1월) 2개월 완성반!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만 따르라!!

**79 종합반 개설 강좌** 행정직/세무직/경찰직/법원직/소방직/경찰직/교육행정직/사회복지직/기술직/고정직/브드직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올야간반**  
첫개강 12.11 =강의시간=  
1930~2250 (안양동 첫캠퍼스)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별 강의 강사진, 최고의 사명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강 12.11 종합/당과반**  
(안양동 첫캠퍼스)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

자재학원 ▶ 김영민학원(광주 중부경찰서 뒤 062-227-8088), 한빛경찰학원(북구청 앞 062-262-3553)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 8,000명 증원예정  
**소방직 전문학원**

국립유원 시험장급 통합 소방특목장기 도원  
**소방체력측정기 무료체험**

가장경제적인 수강료 + 교재 5년 무료  
**6개월 합격학원 90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체력측정

**한빛소방직 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262-0252